New Leader Ⅷ.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1.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책이다. 신명이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는 뜻이다. 왜 모세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 주어야 했을까? 신명기가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유는 선명해진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고,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가 유언과 마찬가지로 당부하는 말씀이다. 신명기의 핵심 말씀은 신명기 6:4-9 절이다.

[신명기 6:4-9]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쉐마'는 무슨 뜻인가? 듣고 반응하라는 뜻이다. '순종'을 말한다. '사랑하라'는 무슨 뜻인가? '감정과 결단'이다. '헌신'을 말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이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정의가 오늘날 성도의 정의와 다를 것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다.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방 신의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이다.

2.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는 그 중심속에 있는 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불과 같이 선포한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한다. 신명기를 읽어보라. 중간지대는 없다. 애매하고 난해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 선명하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만 있을 뿐이다.

(1)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신명기 11:26-28] 26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26절). 이보다 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인생과, 저주를 받을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 앞에 두셨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다. 현명한 인생은 복을 선택한다. 복과 저주가 대놓고 있다.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복이 있음에도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가? 28절에 그 이유 또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우상은 무엇인가? 다른 형상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의 형상'이다. 누가 우상을 만드는가?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자신의 욕망과 뜻을 비워내지 못할까?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인가? 비워내는 사람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쉐마'의 사람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2) 망설일 이유가 없다.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 현명한 것이다. 어리석은 인생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악함이다.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 –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명기 11:8-15]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 강성한 사람 –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8절을 보라. 차지할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강성한 사람'이 된다. 놀라운 약속이다. 강성해야 이길 수 있다. 전쟁의 때이다. 약하면 진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강한 사람이 된다. 너무나 구체적이다. 삶이 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삶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삶에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강성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한다.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심령의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복된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 –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 12절 –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늘의 은혜를 입은 땅'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돌봄이 있는 땅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이다.

ㄱ) 우리가 해야 할 일

신명기 11장은 '출애굽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출애굽 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큰 은혜이다. 나의 토양이 이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원의 감격을 찾으라. 기억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

[신명기 11:13-15]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ㄴ) 이른비, 늦은비 – 씨를 뿌림과 추수를 돕는 은혜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다. 처음과 끝에 돌봄이 있다는 것은,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신명기 11:16-21]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에 미혹이 왔다는 것이다. 즉, 생각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된 것이다. 우상은 형상이다.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 한 것들이다. 이 사람에게 말씀은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 말한다.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소산이 없다는 것이다. 소산을 낼 수 없는 땅은 끝난 것이다. 소산 없는 땅이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긍휼과 자비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움직인다. 은혜를 다시 입어야 한다. 돌아켜야 한다.

이번 한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 소산이 없는 땅이 가득한 때이다. 소산을 낼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 되어야 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로부터 오는 축복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